



중조 수교 75주년에 즈음해

습근평, 조선 최고지도자 김정은과 축전 주고받아

10월 6일,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과 당국 수교 75주년을 경축하는 축전을 주고받았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75년전 중조 두 나라는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해 두 나라 관계의 새로운 역사의 장이 펼쳐졌으며 이는 획기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난 75년간 두 나라는 인민정권을 공고히 하고 국가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서로 지지하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했다. 사회주의건설을 추진하는 길에서 두 나라는 손잡고 전진해왔으며 지

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국제적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사업에서 긴밀히 협력해왔다. 전통적인 중조 친선선의 새로운 장을 계속 써나감으로써 두 나라의 사회주의 위업이 안정적으로 멀리 전진하도록 함께 추동하고 두 나라 인민에게 보다 훌륭한 복지를 마련해줄 용의가 있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나는 중조 관계 발전을 고도로 중시하며 최근 몇년간 김정은 총비서와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지고 친서와 전문 등을 주고받으며 밀접한 의사소통을 유지하면서 중조 관계의 깊이있는 발전을 함께 인도하고 추동했다. 새시대, 새로운 정세 속에서 중국측은 조선측과

함께 랑국 수교 75주년을 계기로 전략적 의사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친선적인 교류와 협력을 심화해 전통적인 중조 친선선의 새로운 장을 계속 써나감으로써 두 나라의 사회주의 위업이 안정적으로 멀리 전진하도록 함께 추동하고 두 나라 인민에게 보다 훌륭한 복지를 마련해줄 용의가 있다.

김정은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75년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설립되어 중조 친선 관계는 새로운 역사적 발전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지난 75년이라는 장 두 당, 두 나라는 각자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을 견지하고 온갖 시련과 도전을 물리치면서 사회주의 길에서 힘차게 전진해왔다. 유구한 역사와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중 친선을 변함없이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두 나라의 근본 이익에 부합된다. 조선 당과 공화국정부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따라 조중 친선 협조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이다. 중국인민이 습근평 총서기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하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로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길 바란다.

/ 신화사



60리 평강벌에 풍년이 들었다. 사진은 국경절 련휴 기간 룡정시 비암산 정상에서 바라본, 유유히 흐르는 해란강과 황금물결 출렁이는 평강벌의 흐뭇한 풍경. / 사진 안상근기자

길림성 2024년도 산재보험 관련 대우 표준 조정

일전, 길림성인민정부 사이트는 <2024년도 산재보험 대우 표준을 조정하고 확정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전 성 산재보험 대우 표준을 조정했다.

조정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상해장애보조금, 부양친족부족금, 생활돌봄비, 임원음식보조금을 받는 인원이므로 통지는 명확히 했다.

조정 표준은 다음과 같다. 1급 상해장애는 매달 170원, 2급 상해장애는 매달 162원, 3급 상해장애는 매달 154원, 4급 상해장애는 매달 147원, 5급 상해장애는 매달 140원, 6급 상해장애는 매달 126원을 증가한다. 조정후 상해장애보조금이 3,127원보다 낮은 경우 30원 더 증가한다.

부양친족부족금 조정 표준은 다음

과 같다. 배우자는 매달 63원, 기타 부양친족은 일인당 매달 57원을 증가한다. 독거로인 혹은 고아는 상술한 표준의 기초에서 인당 매달 6원을 더 증가한다.

이외 완전히 자립할 수 없는 경우 매달 262원을 증가하고 대부분 자립할 수 없는 경우 매달 210원을 추가하며 일부 자립할 수 없는 경우 매달 157원을 증가한다. 임원식사보조금 지급 방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는데 표준은 인당 매달 28원이다.

통지는 이번 조정 시간은 2024년 1월 1일이며 동시에 산재보험에 참가해야 하나 법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고용단위는 본 통지의 조정과 확정 표준을 집행한다고 규정했다.

/ 인민넷

국경절 련휴 길림성 문화관광시장 활력으로 넘쳐



▲ 국경절 기간 매하신구 제 15회 다민족민속문화제가 펼쳐졌다. '새 중국을 노래하며 새시대로 분발해 나아가자'를 타이틀로 한 문화제에서는 민족가무 공연, 수공예품 전시, 미식문화 체험 등 풍부하고도 다채로운 활동을 펼쳐 많은 관광객들이 현장에서 민족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도록 했다.

국경절 련휴 기간의 쾌청한 가을 날씨에 관광객들의 관광 열정이 고조되었다. 련휴가 시작된 앞 5일간 전 성 각지의 문화관광 제품마다 하이러이트가 분분했다. 여러 대형 관광지는 관광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몰려들었고 '휴일경제'가 활력을 발산하면서 문화관광시장 행운이 평온함을 나타냈다.

홍색관광이 지속적으로 열을 올렸다. 새 중국 창건 75주년을 맞으며 전 성 홍색관광풍경구는 관광객들의 인기 선택지로 되었다. 사평전역기념관에서는 '국기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월의 휘황함을 실증하다'는 주제 활동을 펼쳤는데 '국기와 함께 사진 찍어요' 촬영 코너는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으며 5일간 접대한 관광객이 연인수로 1만 5,000명을 넘었다. 한충령홍색관광구에서는 연변 제2회 홍색문화관광활동을 조직하고 단풍구경, 민속놀이, 음식 맛보기, 경기관람, 공연보기 등을 통해 돈화시의 홍색문화와 자연풍광을 펼쳐보였는데 5일간 접대한 관광객이 연인수로 2만명을 초과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50% 증가한 수치이다.

양정우렬사릉원, 옥황산렬사릉원, 오녀봉향일련군민영 등 일련의 홍색관광풍경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관광객들은 진렬관을 참관하고 로세대 혁명가와 선렬들의 혁명 발자취를 찾아보면서 홍색정신을 전승하고 분발의 힘을 섭취했다. 계관산향일활동지, 료원시 제2차 세계대전 동맹군 고급포수수용소 옛터 전람관, 백산시 강원구 석인혈투산(血泪山) 조난광

산로동자 기념관 등지에서 접대한 관광객수는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문화관광 연계활동이 다채로웠다. 국경절 기간 많은 정품 공연들이 '무더기'로 펼쳐졌다. 장춘영화촬영소 옛터박물관은 흥색무대극 <장가영혼(长歌影魂)>, '장춘영화촬영소 NPC' 물입식 관광, 대형 물입식 연극 <소실된 모데(消失的母亲)> 등 '3대 간판 연계 종목'외에도 '장춘영화촬영소 NPC' 공연 새 종목으로 <백모녀>를 내놓았는데 10월 2일, 3일 이틀 연속 관람 인수가 만명을 돌파하며 새로운 역사 기록을 갱신했다.

위만항공박물관은 손넉이 승마공연, 대형 문화관광 연계종목 <현·묵(炫·墨)>을 내놓아 5일만에 접대한 관광객이 동기 대비 6.8% 증가했다. 장춘영화촬영소는 김림예술학원과 손잡고 실경 조성, 실제인물 공연과 춤의 아름다움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장춘영화촬영소의 경전 영화 <영웅찬가>를 재연했다.

10월 3일 저녁, 료원시 첫 대형 문화관광 무대극 <료수파음악고급>이 슈퍼 ONE 료구주제공원에서 정채롭게 펼쳐지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목을 잡았다. 이외에도 길림성교향악단의 '세월류성' 음악회, 길극 아동극 <신판 진가 손오공>, 장춘영화촬영소악단의 '나의 조국' 교향음악회 등 일련의 정채로운 공연이 료원으로 펼쳐졌다.

중점 풍경구의 인기가 폭발적이었다. 국경절 기간 전 성 여러 풍경구에

서는 100여 항목의 문화관광 활동을 조직해 시민과 관광객들을 불렀다. 장백산풍경구는 날씨의 영향으로 1일 천치를 개방하지 못하고 2일 남쪽풍경구를 개방하지 못했음에도 련휴 앞 5일간 동기 대비 21.2% 증가한 관광객을 접대했다.

차간호풍경구는 무형문화유산 미식 특산 전시를 펼치고 야간관광 항목을 풍부히 함으로써 5일만에 접대한 관광객이 연인수로 26만 4,500명을 달했다. 장춘 정월담풍경구는 무용 플래시, 악대 연주, 국풍 공연 등 활동으로 5일간 접대한 관광객이 동기 대비 37.5% 증가했다.

장춘세계조각공원에서 5일간 접대한 관광객은 동기 대비 105.8% 증가했다. 고구려 문물고적 관광풍경구에서 접대한 관광객은 동기 대비 16.6% 증가했다. 련휴가 시작된 후 앞 4일간 지북촌의 관광객은 연인수로 40만 명이 이상이었으며 방천풍경구, 이도백학의 이름 있는 진들의 관광객은 연인수로 모두 10만명을 초과했으며 료정산, 라법산, 눈강만, 일광산, 남조산특향, 동가강관광휴가구 등지의 관광객은 연인수로 모두 5만명 이상이었다.

G331 국도 백산 구간은 려객 고봉을 맞이했다. 10월 5일 점심까지 연인수로 7만 5,000명이 삼도구진 룡산호풍경구에 들어갔고 연인수로 20만 9,000명이 룡강시에 진입했다. 문화관광거리가 도시의 새 랜드마크로 떠올랐다. 지역마다 상업거리의 개조 승격 및 반복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정품 특색 문화관광거리를 건설

함으로써 관광객들의 도시 관광 우선 선택지로 되었다. 장춘의 '여기는 산' 실내 종합 상가는 국경절 기간 클라우드 시장을 가동하여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장인들이 새 조류 문화, 예술, 창의, 생활방식을 전시함으로써 관광객이 동기 대비 19% 증가되었다.

통화 룡흥리에서는 '중국홍을 밝히고 동방의 곡조를 읊조리다'는 국경절 경축 카니발 등 50여 종목의 활동을 펼치고 연인수로 18만명의 관광객을 접대했다. 길림시 백년옛거리-하남가에서는 '대동의 산수로 천하를 마중하고 강성은 새 번성으로 풍년을 경축하네'란 활동을 벌이고 관광객 16만 9,000명(연인수)을 접대했다. 매하구 동북불아성은 '붉은기 휘날리며 중국을 노래하네'란 국경절 경축 활동을 벌이고 매일 저녁 6시 반마다 대형 무용극 <홍기승>을 공연하며 관광객을 연인수로 16만 8,400명 접대했다.

문화관광시장이 평온하고 질서적이었다. 명절 기간에 성 지도자들이 팀을 이끌고 '4불2직(四不两直)' 방식으로 문화관광시장을 몰래 방문하고 조사했다. 성문화관광청은 4팀의 조사조를 무어 각지로 내려가 안전 생산과 시장 관리 사업을 몰래 검사하고 20여개 기업에 봉사하며 감독을 진행했다. 각지에서는 지속적으로 집범검사를 진행하여 경영행위를 한층 더 규범화했다. 10월 4일까지 전 성적으로 집범일군을 연인수로 2,067명 출동시켜 문화관광기업 3,874곳을 검사하고 순찰했으며 안전우환 49곳을 발견 처리했다. / 길림일보



연변조선족자치주통계국에 따르면 2023년 연변의 사과배 재배면적은 3,000여헥타르로 주로 룡정, 연길, 훈춘 등 현(시)들에 분포되었으며 연간 사과배 총생산량은 약 4만 4,000톤에 달했다. 사과배 주요 생산지인 룡정시에서는 농업산업의 우세에 의거하여 사과배 심층기공을 잘하고 사과배 품종의 최적화와 기술혁신을 강화하였다. 우수한 품질의 사과배 품종을 도입하고 집범하여 개량함으로써 과일의 품질을 한층 더 향상시켰다.

룡정시 청수과수전문합작사의 리사장 량자괴는 "합작사에서 과수농

업과학연구원과의 합작을 통해 사과배의 식감을 개량하여 당도를 높인 뒤 식감이 더 좋아졌다."면서 "G331 국도 변경관광에 힘입어 많은 관광객들이 사과배를 맛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룡정시에서는 사과배연구개발센터를 건립하고 전문기술을 초빙해 재배기술 연구를 진행, 생산량을 5% 이상 늘렸는데 연간 800톤의 사과배가 증산될 예정이다. 개발된 사과배주스, 사과배막걸리, 사과배말랭이 등 여러가지 제품들은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처부를 이끌고 있다. / 길림일보

[여러 민족 단결분진해
한마음으로 중국꿈 구축 - 화룡편]
(관련 기사 2면)